

유란시아서

<< [제 105 편](#) | [부분](#) | [내용](#) | [제 107 편](#) >>

제 106 편

실체의 우주 수준

106:0.1 (1162.1) 신, 그리고 우주 실체의 기원 및 명시(明示)의 관계를 하늘 가는 필사자가 얼마큼 알아야 한다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그는 또한 자신과 실존적 실체와 체험적 실체들, 잠재하는 실체와 실재하는 실체들의 수많은 수준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 대하여도 얼마큼 이해해야 한다. 사람이 땅에서 느끼는 방향 감각, 우주를 보는 통찰력, 영적 방향은 모두, 우주 실체들을 더 낮게 이해하고, 이들이 서로 상관되고, 통합되고, 통일되는 기법을 더 잘 이해함으로 개선된다.

106:0.2 (1162.2) 현재 대우주와 태어나는 총 우주는 실체의 술한 형태와 단계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들은 다시 기능적 활동의 몇 가지 수준에서 존재한다. 다양한 이 존재하는 것과 잠재하는 것들은 이 여러 논문에서 이전에 암시되었고, 이것들을 이제 개념의 편리를 위하여 다음의 분류로 묶는다:

106:0.3 (1162.3) 1. 불완전한 유한자. 이것은 대우주에서 하늘 가는 인간의 현재 지위, **유란시아** 필사자의 현재 지위이다. 이 수준은 행성의 인간으로부터 운명에 도달하기까지 사람의 존재를 포함하지만,

도달한 자를 제외한다. 이 수준은 초기의 물리적 시작이 생긴 때부터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되기 직전까지, 그러나 안정된 기간을 제외하고서, 그 사이에 있는 우주들에 관계된다. 이 수준은 시공에서 창조 활동이 있는 현재의 범위를 구성한다. 이 수준은 현재 우주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을 위하여, **파라다이스**로부터 바깥으로 움직이는 듯하다. 그 시대가 막을 내리면 대우주가 빛과 생명에 이르는 것을 구경하고, 또한 확실히, 첫째 바깥 공간 수준에서 발전하여 성장하는 어떤 새로운 질서의 출현을 구경할 것이다.

106:0.4 (1162.4) 2. 최대 유한자. 이것은 운명 — 현재 우주 시대의 규모 안에서 밝혀진 운명 — 에 도달한 모든 체험하는 인간의 현재 지위이다. 우주들도 영적 · 물리적으로, 최대의 지위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최대”라는 용어 자체가 상대적 용어이다 — 무엇과 가지는 관계에서 최대인가? 현재 우주 시대에 최대인 것은 겉보기에 최후인데, 다가올 시대의 조건으로 보면, 참 시작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하보나**의 어떤 단계는 최대 서열인 듯이 보인다.

106:0.5 (1162.5) 3. 초월자. 유한을 초월하는 (앞서는) 이 수준은 유한한 진행을 따른다. 유한한 시작이 유한 이전에 가진 기원, 그리고 겉보기에 유한한 모든 종말이나 운명이 유한 이후에 가지는 중요성을 암시한다. **파라다이스**와 **하보나**의 상당 부분이 초월 서열에 있는 듯이 보인다.

106:0.6 (1162.6) 4. 궁극자. 이 수준은 총 우주 중요성이 있고 완성된 총 우주의 운명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포함한다. **파라다이스**와 **하보나**(특히 **아버지** 세계들의 회로)는 여러 면에서 궁극의 중요성을 가진다.

106:0.7 (1163.1) 5. 공동 절대자. 이 수준은 창조가 표현되는, 초월적인 총 우주 분야에서 체험하는 자들이 계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06:0.8 (1163.2) 6. 절대자. 이 수준은 실존적 일곱 **절대자**가 영원부터 계심을 뜻한다. 이 수준은 또한 어느 정도로 연합하는 체험적 달성을 포함할지 모르지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모른다. 아마도 성격의 접촉 잠재성을 통할 것이다.

106:0.9 (1163.3) 7. 무한. 이 수준은 실존 이전이며 체험 이후이다. 무한의 제한 없는 통일은 모든 시작보다 앞에 있고 모든 운명 뒤에 있는 가상하는 실체이다.

106:0.10 (1163.4) 실체의 이 여러 수준은 현재 우주 시대에 절충하는 편리한 상징법이요 필사자의 견지에서 본 것이다. 필사자가 아닌 다른 견지에서, 그리고 다른 우주 시대의 관점에서 실체를 보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 함께 발표된 개념들은 전부 상대적이며, 다음 여러 가지에 제약을 받고 제한된다는 의미에서 상대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106:0.11 (1163.5) 1. 필사자 언어의 한계.

106:0.12 (1163.6) 2. 필사자 지성의 한계.

106:0.13 (1163.7) 3. 일곱 초우주의 발달이 제한되어 있다.

106:0.14 (1163.8) 4. **파라다이스**로 필사자가 올라가는 데 관계되지 않는 그러한 초우주 발전의 여섯 가지 중요한 목적을 너희는 모른다.

106:0.15 (1163.9) 5. 너희는 영원의 관점을 얼마큼도 파악할 능력이 없다.

106:0.16 (1163.10) 6. 일곱 초우주가 진화로 펼쳐지는 현시대에 관한 것뿐 아니라, 모든 우주 시대와 가지는 관계에서 우주의 진화와 운명을

묘사하기가 불가능하다.

106:0.17 (1163.11) 7. 실존 이전의 존재나 체험 이후의 존재 — 시작보다 앞에, 또 운명 뒤에 놓여 있는 것 — 들이 정말로 무엇을 뜻하는지 어떤 인간도 깨달을 능력이 없는 것.

106:0.18 (1163.12) 실체의 성장은 연속되는 여러 우주 시대의 상황에 제약을 받는다. 중앙 우주는 **하보나** 시대에 아무런 진화적 변화를 겪지 않았지만, 초우주 시대의 현시기에 **하보나**는 진화하는 초우주들과 함께 조정함으로 유도된 어떤 진보적 변화를 겪고 있다. 이제 진화하는 일곱 초우주는 언젠가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된 지위를 얻을 터이고, 현재 우주 시대에 그 성장 한계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없이, 다음 시대, 제1 바깥 공간 수준의 시대는 초우주들을 현시대 운명의 한계로부터 해방할 것이다. 완성된 위에 충만이 계속 쌓이고 있다.

106:0.19 (1163.13) 이것들이 우주에서 사물 · 목적 · 가치의 성장에 대하여, 그리고 늘 올라가는 실체 수준에서 이들의 통합에 관하여 통일된 개념을 발표하려 애쓰면서 우리가 부딪치는 얼마큼의 한계이다.

1. 유한 기능자들의 1차 연합

106:1.1 (1163.14) 유한한 실체의 1차 단계, 곧 영에 기원을 가진 단계는 인간 수준에서 완전한 인격자로서, 그리고 우주 수준에서 완전한 **하보나** 창조로서 직접 표현된다. 체험하는 신조차도 이렇게 **하보나**에 계신 **최상위 하나님의 영(靈)** 몸에서 표현된다. 그러나 유한한 자의 2차,

진화 단계, 즉 시간과 물질에 제약을 받는 단계들은 오로지 성장하고 달성하는 결과로서 우주에서 통합된다. 결국에는 2차 유한자, 즉 완전하게 되는 유한자는 모두 1차 완전 수준과 같은 수준에 이르겠지만, 그런 운명은 시간 자연에 지배되고, 이것은 중앙 창조에서 유전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제한, 초우주의 구조에 따르는 제한이다. (우리는 3차 유한자가 존재한다는 말을 들어 보았지만, 그들을 통합하는 기법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106:1.2 (1164.1) 초우주의 이 시간 자연, 완전을 성취하는 데 있는 이 장애물은, 인간이 진화적 성장에 참여하게 만든다. 시간 자연은 이처럼 인간으로 하여금, 바로 그 인간을 진화시키는 데 **창조자**와 협동하는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든다. 크게 성장하는 이 시절에 불완전한 자는 **칠중 신**의 봉사를 통해서 완전한 자와 서로 관련을 가진다.

106:1.3 (1164.2) **칠중 신**은 공간의 진화하는 여러 우주에서 **파라다이스** 신이 시간의 장벽을 인식함을 가리킨다. 살아남는 한 물질 인격자가 **파라다이스**에서 아무리 멀리 있어도, 공간에 아무리 깊은 데서 기원을 가지더라도, **칠중 신**이 거기에 계시며, 불완전하고 허덕이는 그러한 진화 인간에게 진실 · 아름다움 · 선으로 이루어진 봉사, 사랑으로 자비로운 봉사를 베푸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 발견될 것이다. **칠중자**가 신으로서 베푸는 봉사는 **영원한 아들**을 거쳐서 **파라다이스 아버지**에게 이르기까지 안쪽으로, 그리고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을** 거쳐서 지역 우주의 **아버지 — 창조 아들 —** 들에 이르기까지, 바깥으로 손을 뻗는다.

106:1.4 (1164.3) 사람은 인격을 가졌고 영적 진보로 올라가니까, **칠중 신**의 신성, 성격을 가진 영적 신성을 발견한다. 그러나 인격자의 진보에 관여하지 않는, **칠중자**의 다른 단계들이 있다. 이 신 집합에서 신의 모습은 현재, 일곱 **으뜸 영**과 **합동 행위자**의 연결에서 통합되지만, 이

모습은 **최상 존재**의 태어나는 성격 속에 영원히 통일되는 운명을 가졌다. **칠중 신**의 다른 여러 단계는 현재 우주 시대에 여러 가지로 통합되지만, 모두가 마찬가지로 **최상위** 안에서 통일되는 운명을 가졌다. 모든 국면에서 **칠중자**는 현재 대우주의 기능적 실체가 상대적으로 통일되는 근원이다.

2. 최상위의 2차 유한 통합

106:2.1 (1164.4) **칠중 신**이 유한한 진화를 기능적으로 조정하는 것 같이, **최상 존재**는 궁극에 운명의 달성을 통합한다. **최상 존재**는 신이 대우주의 진화를 완성하는 것이다 — 영 핵심 주위에 물리적 진화가 있고, 물리적으로 진화하는 영토, 회전하고 소용돌이치는 영토를 영 핵심이 궁극에 지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두가 다음 성격자가 내리는 명령에 따라서 일어난다: 가장 높은 의미에서 **파라다이스** 성격자, 우주 의미에서 **창조** 성격자, 인간적 의미에서 필사 성격자, 완결되는 의미 또는 체험적 총합 의미에서 **최상위** 성격자.

106:2.2 (1164.5) **최상위** 개념은 영 성격, 진화적 동력, 그리고 동력과 성격의 합성 — 진화적 동력을 영 성격과 통일하고 영 성격이 그 동력을 지배하는 것 — 을 구별하여 인식해야 한다.

106:2.3 (1164.6) 모든 것을 종합해 보건대, 영은 **파라다이스**로부터 **하보나**를 거쳐서 온다. 에너지와 물질은 겉보기에 공간의 깊은 데서 진화하는 듯하고, **하나님**의 **창조 아들**들과 함께 **무한한 영**의 자식들이 이를 동력으로 조직한다. 이 모두가 체험적인 것이다. 이것은 **창조자**인 신들과 진화하는 인간까지도 포함하여, 넓은 범위의 살아 있는

존재들을 끌어들이는, 시공의 거래이다. 대우주에서 **창조자**인 신들이 동력을 통달하는 것은 차츰 확대되어 시공의 우주들이 진화로 정착되고 안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이것이 **철중 신**의 체험적 동력이 절정에 오르는 것이다. 이것은 **우주의 아버지**가 **조절자**를 수여하는 것으로부터 **파라다이스 아들**들이 일생을 수여하기까지, 시공에서 신성을 달성하는 전역을 둘러싼다. 이것은 벌어들인 동력, 입증한 동력, 체험으로 얻은 동력이며, **파라다이스 신**들이 가진 영원의 동력, 헤아릴 수 없는 동력, 실존적 동력과 대조가 된다.

106:2.4 (1165.1) **철중 신**이 신으로서 성취하는 것들에서 생기는 이 체험적 동력 자체는, 통합 — 총합 — 을 이용하여, 진화하는 창조들을 체험으로 통달한 전능한 동력으로서 신의 결합하는 성질을 명시한다. 이 전능한 힘은 다음에 **최상위 하나님**의 성격, **하보나**에 계시는 영 성격과 연합하여, **하보나** 세계들 바깥 지대의 시범 구체에서 영 성격이 결합됨을 발견한다. 이처럼 체험적 신은 시공의 산물인 동력에 중앙 우주에서 거하는 영 계심과 신다운 성격을 부여함으로, 긴 진화적 투쟁을 끝마친다.

106:2.5 (1165.2) 이처럼 **최상 존재**는 시공에서 진화하는 모든 것을 모조리, 궁극에 품에 안으며, 한편 이 성질에 영 성격을 부여한다. 생물이, 아니 필사자도 이 대단한 거래에 참여하는 인격자이니까, 그들도 **최상위**를 알고, 그러한 체험적 신의 참된 자식으로서 **최상위**를 알아볼 능력을 분명히 얻는다.

106:2.6 (1165.3) **네바돈의 미가엘**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와 같으니, **아버지**의 **파라다이스** 같은 완전함을 함께 가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진화하는 필사자는 언젠가 체험하는 **최상위**와 유사함을

얻을 터이니, 그들이 참으로 그가 진화로 얻은 완전함을 함께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106:2.7 (1165.4) **최상위 하나님**은 체험을 겪는다. 따라서 그는 완벽하게 체험할 수 있다. 일곱 **절대자**의 실존적 실체는 체험 기법으로 파악할 수 없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세로, 유한한 인간의 인격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성격 실체**들만 파악할 수 있다.

106:2.8 (1165.5) **최상 존재**의 동력과 성격의 통합이 끝난 가운데, 그렇게 관련될 수 있는 몇 가지 삼극일치의 모든 절대성이 관련될 것이다. 모든 유한한 성격자가 진화된 이 당당한 성격자를 체험으로 도달하고 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늘 가는 사람들이 가정된 일곱째 단계의 영 존재에 도달할 때, 그들은 그 단계에서, 절대 이하 수준에서, 체험을 겪을 수 있는 **최상 존재** 속에 드러난 바와 같이, 절대적이고 무한한 여러 삼극일치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의 실현을 체험할 것이다. 그러나 최대로 발전하는 이 여러 단계에 이르는 것은 아마도 대우주 전체가 빛과 생명 속에 나란히 안정될 때를 기다릴 것이다.

3. 초월적 3차 실체 연합

106:3.1 (1165.6) 초한(超限) 건축가들은 계획을 만들어낸다. **최상 창조자**들은 계획한 것을 존재하게 만든다. **최상 존재**는 시간 속에 **최상 창조자**들이 창조한 대로, **으뜸 건축가**들이 공간에서 예측한 대로, 이를 충만하게 완성시킨다.

106:3.2 (1165.7) 현재 우주 시대에 총 우주의 행정을 조정하는 것은 **총 우주 건축가**들의 기능이다. 그러나 현재 우주 시대가 종결될 때, **전능**

최상위의 출현은 진화로 생긴 유한자가 체험적 운명의 첫째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릴 것이다. 이 사건은 분명히 제1 체험적 **삼자일체** — **최상 창조자들, 최상 존재, 총 우주 건축가들의 통합** — 기능을 완성시킬 것이다. 이 **삼자일체**는 계속된 총 우주의 진화적 통합을 성취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106:3.3 (1166.1)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참으로 무한한 **삼위일체**이고, 이 최초의 **삼위일체**를 포함하지 않는 어떤 **삼자일체**도 도저히 무한할 수 없다. 그러나 최초의 **삼위일체**는 순전히 절대적 신들의 연합으로 생긴 결말이다. 절대 이하의 존재들은 이 원초적 연합과 아무 상관이 없다. 나중에 나타나는 체험적 **삼자일체**들은 인격자들의 기여까지도 포함한다. 분명히 이것은 **궁극 삼자일체** 경우에 참말이며, 거기서 **주 창조 아들들이** 그 **최상 창조자** 구성원들 사이에 바로 그렇게 계신 것은 이 **삼자일체** 연합 안에 인간이 실제로 겪는 진정한 체험이 동시에 자리에 있음을 가리킨다.

106:3.4 (1166.2) 제1 체험적 **삼자일체**는 궁극의 결말을 집단으로 성취하게 한다. 집단 연합은 개인의 능력을 예시(豫示)할 수 있게, 아니 초월할 수 있게 하며, 이것은 유한 수준을 지나서도 참말이다. 다가올 시대에, 일곱 초우주가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된 뒤에, 의심할 여지없이, **최후 군단은 궁극 삼자일체의 명령을 받은 대로, 최상 존재 안에서 동력과 성격이 연합된 대로, 파라다이스 신들의 목적을 공포(公布)할 것이다.**

106:3.5 (1166.3) 과거 영원과 미래 영원의 모든 거대한 우주 발전을 통하여 두루,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우주의 아버지** 요소들이 커지는 것을 탐지한다. **스스로 계신 이**로서, 우리는 그가 총 무한을 침투한다고 철학적으로 가정하지만, 어떤 인간도 그러한 가설을 체험으로 이해할 수 없다. 우주들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이 조직하는 공간으로

인력(引力)과 사랑이 뻗어 나감에 따라서, 우리는 **첫째 근원 중심**을 더욱 많이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인력의 행위가 **무제한 절대자**의 공간 계심에 침입하는 것을 지켜본다. 그리고 우리는 **신 절대자**가 신으로 계신 가운데 영 생물이 진화하고 커지며, 한편 우주와 영의 진화는 모두, 유한한 신 수준에서 지성과 체험으로 인하여 **최상 존재**로서 통일되고, 초월 수준에서 **궁극 삼자일체**로서 조정하고 있음을 탐지한다.

4. 궁극위의 4차 통합

106:4.1 (1166.4)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분명히 궁극의 의미에서 조정하지만, 이 점에서 스스로 제한한 **절대자**로서 활동한다. 체험하는 **궁극 삼자일체**는 초월적인 것을 초월자로서 조정한다. 영원한 미래에 이 체험적 **삼자일체**는 통일성을 높임으로, **궁극 신**의 궁극에 이르는 계심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다.

106:4.2 (1166.5) **궁극 삼자일체**가 총 우주를 조정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한편, **궁극위 하나님**은 총 우주 전체를 지휘하는 초월 동력을 가진 성격이 된 것이다. **궁극위**가 궁극에 이르는 일을 마치는 것은 총 우주가 완성됨을 암시하고 이 초월적 신이 완전히 솟아남을 의미한다.

106:4.3 (1166.6) **궁극위**가 완전히 솟아나고서 무슨 변화가 터질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최상위**가 지금 영적으로 몸소 **하보나**에 계시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궁극위**도 또한, 그러나 초한 의미와 성격 초월 의미에서 **하보나**에 계신다. 그리고 **궁극위의 제한된 대관**들이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에게 일러준 적이 있다. 하지만 너희는 그들이 현재 계신 곳이나 기능에 관하여 들은 적이 없다.

106:4.4 (1167.1) 그러나 **궁극 신**이 솟아나는 데 따르는 행정적 영향과 상관없이, 그의 초월적 신성의 성격 가치를 이 신 수준의 현실화에 참여했던 모든 성격자가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유한자를 초월하는 것은 오로지 궁극의 달성으로 이끌 수 있을 따름이다. **궁극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지만, 여전히, **절대자**들과 기능적으로 관계하는 능력이 본래부터 있는데도, 절대 이하이다.

5. 공동 절대 단계, 곧 다섯째 단계의 연합

106:5.1 (1167.2) **최상위**가 진화로 체험하는 실체의 최고점인 것처럼, **궁극위**도 초월적 실체의 정점이다. 이 두 체험적 신이 실제로 솟아나는 것은 2차 체험적 **삼자일체**가 생길 기초를 놓는다. 이것은 **절대 삼자일체**, 즉 **최상위 하나님**, **궁극위 하나님**, 밝혀지지 않은 **우주 운명 종결자**, 이 셋의 연합이다. 그리고 이 **삼자일체**는 이론적으로 잠재성의 **절대자** — **신 절대자**, **우주 절대자**, **무제한 절대자** — 를 활성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절대 삼자일체**가 마침내 형성되는 것은, **하보나**에서 제4차, 가장 바깥 공간 수준까지, 총 우주 전체의 진화가 완결된 뒤에야 일어날 수 있다.

106:5.2 (1167.3) 이 체험적 **삼자일체**들은, 체험하는 신의 성격 품질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도달한 신의 통일된 특징을 나타내는, 성격이 아닌 모든 다른 품질을 서로 연결 짓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이 발표가 주로 우주 통일의 성격 국면을 다루지만, 그런데도, **최상 존재**의 진화와 연관하여 지금 진행되는, 동력을 가진 성격의 통합이 보여주다시피, 온 우주의 비성격 모습도 마찬가지로 통일을 겪도록 예정된 것이 참말이다. **최상위**의 영 성격 품질은 **전능자**의 동력

특권과 분리할 수 없고, **최상위** 지성의 알려지지 않은 잠재성이 이 두 가지를 보충한다. 하나의 성격자인 **궁극위 하나님**도 궁극 신의 비성격 모습과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절대 수준에서 **신 절대자**와 **무제한 절대자**는, **우주 절대자**가 계신 앞에서 분리할 수 없고 구별할 수 없다.

106:5.3 (1167.4) **삼자일체**들은 그 자체로서 저절로 성격이 아니지만^[133], 성격과 대립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성격을 둘러싸고, 집단적 의미에서 비성격 기능과 서로 관련 짓는다. 그러면 **삼자일체**들은 언제나 신의 실체이지만, 결코 성격을 가진 실체는 아니다. 한 **삼자일체**의 성격 모습은 그 개별 구성원에 본래 있고, 개별 성격자로서 그들은 그 **삼자일체**가 아니다. 오직 하나의 집합으로서 그들은 **삼자일체**이며, 바로 그것이 **삼자일체**이다. 그러나 **삼자일체**는 둘러싼 신 모두를 포함한다. **삼자일체**는 신이 하나되는 것이다.

106:5.4 (1167.5) 세 **절대자** — **신 절대자**, **우주 절대자**, **무제한 절대자** — 는 **삼자일체**가 아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로지 신이 된 자가 **삼자일체**가 될 수 있다. 모든 다른 결합은 삼자일치이든지, 아니면 삼극일치이다.

6. 절대 단계, 곧 여섯째 단계의 통합

106:6.1 (1167.6) 총 우주의 현재 잠재성은 도저히 절대적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잠재성은 아마도 궁극에 가까울지 모르고, 절대 이하의 우주 규모 안에서는 절대적 의미 및 가치를 완전히 계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따라서 세 **절대자**의 한없는 가능성의 모든 표현을 상상하려고 시도하거나, **신 절대자**의 현재 비성격

수준에서 **절대자 하나님**이 체험으로 성격화되는 것을 상상하려고 시도할 때 우리는 상당한 어려움에 부딪친다.

106:6.2 (1168.1) **최상 존재**의 현실화를 위하여, **궁극 삼자일체**가 형성되고 완전히 활동하는 것을 위하여, **궁극위 하나님**이 궁극에 나타나는 것을 위하여, 아니 **절대 삼자일체**가 시작되는 것을 위해서도, 총 우주의 공간 무대는 적절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 2차 체험적 **삼자일체**가 완전히 활동하는 것에 관한 우리의 개념은 널리 퍼지는 총 우주까지도 뛰어넘는 무엇을 의미하는 듯하다.

106:6.3 (1168.2) 우리가 하나의 무한한 우주 — 총 우주를 지나서 어떤 제한할 수 없는 우주 — 를 가정하고, **절대 삼자일체**의 마지막 발전이 궁극을 초월하는 그러한 활동 단계에서 바깥에서 생길 것이라고 상상한다면, **절대 삼자일체**의 완성된 기능은 무한한 여러 창조에서 마지막으로 표현되고, 모든 잠재성이 마침내 절대로 현실화하리라 추측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항상 확대되는 실체의 여러 구역을 통합하고 연합하는 것은 그렇게 연결된 구역들 안에 있는 모든 실체를 포함하는 데 비례하여, 절대 지위에 접근할 것이다.

106:6.4 (1168.3) 달리 말하면 이렇다: **절대 삼자일체**는 그 이름이 가리키다시피, 그 총 기능이 정말로 절대적이다. 제약되거나 한정되거나 아니면 달리 제한된 기초 위에서, 어떻게 절대 기능이 총체를 표현할 수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그러한 총체 기능도 (잠재성에) 제약을 받지 않으리라 가정해야 한다. 제약받지 않은 것은 또한, 적어도 질적 관점에서 보면, 한이 없으리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양적 관계에 관하여 우리는 그다지 확실치 않다.

106:6.5 (1168.4)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한다: 실존적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무한하고, 한편 체험적 **궁극 삼자일체**는 무한 이하이지만, **절대 삼자일체**는 분류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비록

체험으로 기원이 생기고 구성되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실존적인, 잠재성의 **절대자**들에 부딪친다.

106:6.6 (1168.5) 인간의 지성이 그러한 아득한 초인간 개념을 파악하려고 애쓰는 것은 도저히 유익하지 않지만, **절대 삼자일체**의 영원한 행위는 잠재성의 **절대자**들이 어떤 식으로 결국 체험적이 된다고 생각해도 좋다. 이것은 **무제한 절대자**는 아니라도, **우주 절대자**에 관하여 이치에 맞는 결론인 듯 보일 것이다. 적어도 우리는, **우주 절대자**가 정적이고 잠재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이 낱말들의 총체적 신의 의미에서 또한 다른 것과 연합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상상할 수 있는 신 및 성격의 가치에 관해서 말하면, 이렇게 추측하는 사건들이 **신 절대자**가 성격화하는 것, 그리고 — 체험적 신들의 셋째이자 마지막인 — **절대자 하나님**의 성격이 완성되는 데 본래 있는, 성격을 초월하는 가치와 성격을 넘는 의미가 나타나는 것을 암시한다.

7. 운명의 마지막

106:7.1 (1168.6) 실체의 무한한 통합을 다루는 개념들을 형성하는 데 겪는 어려움 가운데 더러는 모든 그러한 개념이 우주 발전의 최후와 같은 무엇, 언젠가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의 실현, 어떤 종류의 체험적 실현을 포함한다는 사실에 본래부터 있다. 양적 무한을 최종으로 언젠가 마지막에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세 잠재 **절대자** 안에는, 아무리 많은 체험적 발전도 결코 없앨 수 없는, 탐구하지 않은 가능성이 반드시 남아 있음이 틀림없다. 영원 그 자체는 절대적이지만, 절대를 넘지 않는다.

106:7.2 (1169.1) 최종의 통합이라는 시험적 개념조차, 제한 없는 영원의 결실과 분리할 수 없고, 따라서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미래 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없다.

106:7.3 (1169.2)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를 구성하는 신들의 의지 행위가 운명을 확정한다. 운명은 세 가지 큰 광대한 잠재성 안에서 정해지며, 그 절대성은 미래에 발전하는 모든 가능성을 포함한다. **우주 운명 종결자**의 행위가 아마도 운명을 성취하고, 이 행위는 아마도 **절대 삼자일체** 안에서 **최상위**와 **궁극위**와 관계된다. 어떤 체험적 운명도, 체험하는 인간이 적어도 얼마큼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무한한 실존자들에 부딪치는 운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최종 운명은 실존적이지자 경험으로 얻는 달성이며 **신 절대자**를 말려들게 하는 듯하다. 그러나 **신 절대자**는 **우주 절대자**의 덕분으로, **무제한 절대자**와 영원한 관계를 가진다. 체험 가능성을 지닌 이 세 **절대자**는 실제로 실존적이고 그보다 크며, 그들은 한없고,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가없고, 측량할 수 없다 — 참으로 무한하다.

106:7.4 (1169.3) 그러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은 그러한 가상(假想) 운명에 대하여 철학적 이론을 세우는 것을 막지 않는다. 도달이 가능한 절대적 **하나님**으로서 **신 절대자**의 현실화는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불가능할지 모른다. 그런데도, 그러한 최후의 결실은 하나의 이론적 가능성으로 남는다. **무제한 절대자**가 어떤 상상할 수 없는 무한 우주에 말려드는 것은 끝없이 영원한 미래에 헤아릴 수 없이 아득히 멀지 모르지만, 그런데도 그러한 가설은 타당하다. 필사자 · 상물질자 · 영 · 최후자 · 초월자, 그리고 다른 자들은, 우주들 자체 및 모든 다른 국면의 실체와 더불어, 절대 가치가 있는 잠재적 최종 운명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존재나 우주도 그러한

운명의 모습을 전부 완벽하게 언제라도 도달할 것인가 우리는 의심이 든다.

106:7.5 (1169.4) **아버지**를 이해하는 데 너희가 아무리 성장한다 하더라도, **아버지인 스스로 계신 이**의 밝혀지지 않은 무한성에 너희의 머리는 언제나 어지러울 것이다. 그 무한의 탐구되지 않은 광대함은, 영원의 주기 전역에 걸쳐서 내내, 언제나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채로 남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무리 많은 부분을 너희가 깨닫더라도, 존재하는지 어쩐지 너희가 미처 의심도 하지 못할 훨씬 많은 부분이 언제나 남아 있을 것이다. 유한한 존재의 영토에서 참말인 것처럼, 똑같이 초월 수준에서도 이것이 참말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에는 끝이 없다!

106:7.6 (1169.5) 최종 의미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것은 어떤 면에서도 우주의 인간이 낙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정말로 너희는 **칠중자 · 최상위 · 궁극위**의 신 수준에 이를 수 있고, 그렇게 하며, 이 수준이 너희에게 가지는 의미는, **아버지 하나님**을 무한히 깨닫는 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절대 지위를 가진 **영원한 아들**에게, 그리고 **합동 행위자**에게 의미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무한성은 사람을 괴롭히기는커녕, 모든 끝없는 미래를 통해서 내내, 영원조차도 소모하거나 끝내지 않을 가능성, 인격을 개발하고 신과 교제하는 가능성을 하늘 가는 인격자가 앞으로 가지리라는 최상의 확신이 되어야 한다.

106:7.7 (1169.6) 대우주의 유한한 인간에게 총 우주 개념은 거의 무한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없이, 거기 있는 초한(超限) 건축가들은 끝없는 **스스로 계신 이** 안에서 상상하지 못한 앞날의 발전에 총 우주가 관계되는 것을 파악한다. 공간 그 자체도 겨우

궁극의 조건, 중부 공간에서 고요한 지대의 상대적 절대성 안에서 제한하는 조건일 뿐이다.

106:7.8 (1170.1) 총 우주 전체가 마침내 완성되는, 상상할 수 없이 아득히 먼 앞날의 영원한 순간에, 의심할 여지없이, 그 역사 전체를 겨우 시작이라고, 지도(地圖)가 그려지지 않은 무한 속에서 더욱 크고 더욱 황홀한 변화를 위해서 어떤 유한한 초월적 기초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우리 모두가 돌이켜볼 것이다. 그러한 미래 영원의 순간에 총 우주는 여전히 젊은 듯이 보일 것이다. 정말로, 결코 그치지 않는 영원의 한없는 가능성에 부닥쳐서 총 우주는 언제나 젊을 것이다.

106:7.9 (1170.2) 무한한 운명을 달성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그런 운명에 대한 관념을 생각해 보는 것을 막지 않는다. 그리고 세 가지 절대 잠재성이 언제라도 완벽하게 현실이 될 수 있다면, 총 실체의 마지막 통합을 상상할 수 있으리라고 우리는 서슴지 않고 말한다. 이러한 발전이 일어나는 것은 **무제한 절대자, 우주 절대자, 신 절대자**가 완벽하게 현실화되는 데 기초를 두고, 세 잠재성의 연합은 **스스로 계신 이**의 잠재력을 이루며, 이것은 영원의 중지된 실체, 모든 미래와 그보다 더한 것의 정지된 가능성들이다.

106:7.10 (1170.3) 신중히 말해도 그러한 궁극의 사건들은 오히려 아득히 먼 후일의 이야기이다. 그런데도 세 가지 **삼자일체**의 여러 작용 · 성격자 · 연합 속에서, **아버지인 스스로 계신 이**의 일곱 가지 절대 국면이 다시 통일되는 이론적 가능성을 우리가 탐지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이것은 우리가 세 가지 **삼자일체** 개념과 얼굴을 마주하도록 만들고, 그것은 실존적 지위를 가진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그리고 체험적 성질과 기원을 가지고 나중에 나타나는 두 **삼자일체**를 포함한다.

8. 가장 높은 삼자일체

106:8.1 (1170.4) 가장 높은 **삼자일체**의^[134] 성질을 인간의 지성에게 묘사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영원 속에 실현되는 이론적 무한에서 명시되는 바와 같이, 체험적 무한의 전부를 실제로 총합한 것이다. 가장 높은 **삼자일체**에서, 체험하는 무한자는 실존적 무한자와 같은 신분을 얻으며, 이 둘은 체험 이전(以前)이자 실존 이전의 **스스로 계신 이** 안에서 하나와 같다. 가장 높은 **삼자일체**는 15 가지 **삼자일치** 및 관계된 삼극일치에서 암시되는 모든 것의 최종 표현이다. 상대적 존재는 최후에 이르는 존재를, 실존적이든 체험적이든,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최후에 이르는 자는 반드시 상대적인 자로서 제시되어야 한다.

106:8.2 (1170.5) 가장 높은 **삼자일체**는 몇 단계에서 존재한다. 그것은 인간 수준보다 훨씬 위에 있는 존재들의 상상력을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가능성 · 확률 · 필연성을 포함한다. 그것은 하늘 철학자들이 아마 의심하지 않은 함축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함축성은 **삼자일치**에 있고, **삼자일치**들은 결국 측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106:8.3 (1170.6) 가장 높은 **삼자일체**를 묘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세 수준의 개념을 제시하기로 한다:

106:8.4 (1170.7) 1. 세 가지 **삼자일체**의 수준.

106:8.5 (1170.8) 2. 체험적 신의 수준.

106:8.6 (1170.9) 3. **스스로 계신 이**의 수준.

106:8.7 (1170.10) 이것들은 통일성이 높아지는 수준이다. 실제로, 가장 높은 **삼자일체**는 첫째 수준이고, 한편 둘째와 셋째 수준은 첫째의 통일에서 파생되는 것들이다.

106:8.8 (1171.1) 첫째 수준: 이 첫째 연합 수준에서, 세 가지 **삼자일체**가 신 성격자들의 집합, 다르지만 완전하게 동시화된 집합으로서 활동한다고 생각된다.

106:8.9 (1171.2) 1.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세 **파라다이스 신** — 아버지 · 아들 · 영의 연합.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세 가지 기능 — 절대 기능, 초월 기능 (궁극성 **삼위일체**)^[135], 유한 기능(최상 **삼위일체**) — 을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언제라도, 항상, 이들 가운데 어느 것도 되고, 모두도 된다.

106:8.10 (1171.3) 2. 궁극 삼자일체. 이것은 **최상 창조자들, 최상위 하나님, 총 우주 건축가들**이 신으로서 연합한 것이다. 이것이 이 **삼자일체**의 신 모습을 적절히 제시한 것이지만, 이 **삼자일체**의 다른 단계들이 있다는 것을 적어야 한다. 하지만 이 단계들은 그 신의 모습과 완전하게 조정되는 듯이 보인다.

106:8.11 (1171.4) 3. 절대 삼자일체. 이것은 신의 모든 가치에 관하여, **최상위 하나님, 궁극위 하나님, 우주 운명 종결자**의 집합이다. 이 **삼자일체**된 집합의 어떤 다른 단계는, 팽창하는 우주에서 신이 아닌 가치들과 상관이 있다. 그러나 체험적 신들의 동력과 성격 모습이 지금 체험으로 통합되는 과정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들은 여러 신 단계와 함께 통일되고 있다.

106:8.12 (1171.5) 가장 높은 **삼자일체**에서 이 세 가지 **삼자일체**의 연합은 실체의 가능한 한없는 통합을 마련해 준다. 이 집합은 원인과 중간에 있는 자와 최후에 이른 자, 시작하는 자와 실현하는 자와 종결자, 그리고 시작 · 존재 · 운명을 포함한다. **아버지 · 아들**의 협동 관계는 **아들 · 영**이 되었고, 다음에 **영 · 최상위**, 그리고 계속해서 **최상위 · 궁극위, 궁극위 · 절대자**, 아니 **절대자와 아버지 무한자**까지도 되었다 — 이것이 실체 집단의 완성이다. 마찬가지로, 신과 성격에 아주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른 여러 단계에서, 위대한 **첫째 근원 중심**은 영원의 궤도 둘레에서, 절대적인 스스로 존재함에서 끝없는 자아 계시를 거쳐서, 최종의 자아 실현에 이르기까지 — 절대 실존자로부터 최종 체험자들에 이르기까지 — 실체의 한없음을 스스로 실현한다.

106:8.13 (1171.6) **둘째 수준**: 세 가지 **삼자일체**의 조정은 불가피하게 체험적 신들이 연합된 연결에 관계되며, 이들은 이 **삼자일체**들과 유전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이 둘째 수준의 성질은 때때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106:8.14 (1171.7) 1. 최상위. 이것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파라다이스** 신들의 **창조 아들** 및 **창조 딸**과 체험적 연락을 가지면서, 신에게 생기는 통일성의 결과이다. **최상위**는 첫째 단계인 유한한 진화가 완성되어 신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106:8.15 (1171.8) 2. 궁극위. 이것은 둘째 **삼자일체**가 궁극에 얻은 통일성이 신에게 나타나는 결과이며, 신이 초월적 초한 성격이 된 것이다. **궁극위**는 많은 품질을 가진, 다양하게 간주되는 통일성에 있고, 그에 대한 인간의 개념은 적어도 통제하고 지휘하고, 몸소 체험할 수 있고,

긴장을 통일하는 그러한 단계의 궁극성을 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궁극에 이른 신은 밝혀지지 않은 많은 다른 모습이 있다.
궁극위는 최상위와 비교할 만하지만 동일하지 않으며, 궁극위는 단지 최상위를 확대한 것도 아니다.

106:8.16 (1172.1) 3. 절대자. 가장 높은 **삼자일체**의 둘째 수준에서 셋째 구성원의 특성에 관하여 많은 이론이 있다. **절대자 하나님**은 의심할 여지없이, **절대 삼자일체**의 마지막 기능이 성격에 미치는 결과로서 이 연합에 말려들어 있다. 그래도 **신 절대자**는 영원의 지위를 가진 실존적 실체이다.

106:8.17 (1172.2) 이 셋째 구성원에 관한 개념의 어려움은 그러한 구성원 자격을 전제하는 것은 **절대자**가 꼭 하나 있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에 본래부터 있다. 이론적으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면, 세 **절대자**가 하나로서 체험으로 통일된 것을 우리가 구경해야 한다. 무한 속에서 실존적으로 하나의 **절대자**가 있다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다. 누가 이 셋째 구성원일 수 있는가 조금도 뚜렷하지 않지만, 그러한 것은 어떤 형태로 상상하지 못하게 연락되고 우주에서 명시되는 **신 절대자, 우주 절대자, 무제한 절대자**로 구성될지 모른다고 흔히 가정된다. 분명히, 가장 높은 **삼자일체**는 세 **절대자**를 완전히 통일하지 못하고서 완벽한 기능을 도저히 얻을 수 없고, 세 **절대자**는 무한한 가능성을 모두 완전히 실현하지 않고서 도저히 통일될 수 없다.

106:8.18 (1172.3) 가장 높은 **삼자일체**의 셋째 구성원이 **우주 절대자**라고 상상하고, 이 개념이 **우주 절대자**가 정적(靜的)이고 잠재할 뿐 아니라 연합 성질이 있다고 상상한다면, 아마도 최소한의 진실 왜곡일 것이다.

그러나 총 신의 기능과 창조하고 진화하는 모습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아직도 파악하지 못한다.

106:8.19 (1172.4) 비록 가장 높은 **삼자일체**에 대하여 완성된 개념을 형성하기 어렵지만, 한정된 개념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가장 높은 **삼자일체**의 둘째 수준이 본질적으로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된다면, **최상위 하나님, 궁극위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의 연합이, 이 체험적 신들의 조상인, 성격을 가진 **삼자일체**들의 연합이 낳는 성격 반응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아주 가능하게 된다. 체험하는 이 세 신이, 그들의 조상이자 원인이 되고 첫째 수준을 구성하는 **삼자일체**들이 더욱 통일되는 직접 결과로서, 둘째 수준에서 분명히 통일될 것이라는 의견을 우리는 감히 가져 본다.

106:8.20 (1172.5) 첫째 수준은 세 가지 **삼자일체**로 구성된다. 둘째 수준은 체험으로 진화한 성격자, 체험으로 궁극에 이른 성격자, 체험적이고 실존적인 신 성격자들의 성격 연합으로서 존재한다. 가장 높은 완벽한 **삼자일체**를 이해하는 데 무슨 개념의 어려움이 있든지 상관없이, 둘째 수준에서 이 세 신의 성격 관계는 **위엄자**가 신이 되는 현상에서, 바로 우리의 우주 시대에 대하여 분명히 나타났다. **신 절대자**는 **궁극위**를 통해서, 그리고 **최상 존재**의 초기 창조 명령에 반응하여 활동하면서, 이 둘째 수준에서 **위엄자**를 현실화하였다.

106:8.21 (1172.6) **셋째 수준**: 둘째 수준에서 가장 높은 **삼자일체**의 제한 없는 가정(假定)에서는, 전체 무한에 지금 있거나, 전에 있었거나,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실체가 가진 어떤 단계의 상관 관계도 포함된다. **최상 존재**는 영일 뿐 아니라 또한 지성 · 동력 · 체험이다. **궁극위**는 이 모두이고 이를 훨씬 넘으며, 한편

이와 관련하여 **신 절대자**, **우주 절대자**, **무제한 절대자**가 하나가 된다는 개념에 모든 실체가 실현되는 절대 최후성이 담겨 있다.

106:8.22 (1172.7) **최상위**, **궁극위**, 완성된 **절대자**, 이 셋의 연합에는, **스스로 계신 이**가 최초에 분할한 모습, 무한의 일곱 **절대자**를 출현하게 만든 무한의 모습을 기능적으로 다시 조립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비록 우주의 철학자들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판단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주 이렇게 묻는다: 둘째 수준에서 가장 높은 **삼자일체**가 언젠가 **삼자일체**의 통일을 성취할 수 있다면, 다음에 그러한 신(神)이 통일되는 결과로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이 **스스로 계신 이**를 체험으로 달성 가능한 존재로 현실화하는 길로 직접 이끌 것이라 우리는 확신한다. 성격을 가진 존재들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스스로 계신 이**가 **아버지 무한자**로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할 수 있다. 이 절대 운명이 비성격 관점에서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 오로지 영원이 아마도 해명해 줄 수 있을 문제이다. 그러나 가능성이 적은 이 궁극의 일을 우리가 성격을 가진 생물로서 보건대, 모든 성격자의 마지막 운명을 바로 이 성격자들의 **우주의 아버지**가 마침내 알 것이라 우리는 추측한다.

106:8.23 (1173.1) 우리가 과거 영원에 계셨던 **스스로 계신 이**를 철학적으로 상상할 때, 그는 혼자 계시고 그 옆에 아무도 없다. 미래 영원 속으로 앞을 내다볼 때, 우리는 **스스로 계신 이**가 하나의 실존자로서 도저히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광대한 체험적 차이가 있다고 예측하고 싶다. 그러한 **스스로 계신 이** 개념은 충만한 자아 실현을 의미한다 — **스스로 계신 이**의 자아 계시에 의도하여 참여한 자가 되고, 총 무한의 절대 의지(意志) 부분, 즉 절대적 **아버지**의 마지막

아들로서 영원히 남아 있을 그러한 성격자들이 사는 한없는 은하계를 포함한다.

9. 실존적인, 무한의 통일

106:9.1 (1173.2) 가장 높은 **삼자일체** 개념에서 우리는 한없는 실체의 가능한 체험적 통일을 가정하며, 이 모두가 아주 먼, 정말로 아득히 먼 영원 속에서 일어날지 모른다는 이론을 때때로 세운다. 그런데도, 모든 과거와 미래의 우주 시대처럼, 바로 이 시대에 실제로 현재, 무한의 통일이 있다. 그러한 통일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서 실존적이다. 체험하는 실체로서 무한의 통일은 생각할 수 없이 아득히 멀지만, 무한의 조건 없는 통일은 지금, 우주가 존재하는 현재 순간을 지배하며, 절대적인 실존적 품위를 가지고 모든 실체의 다양한 모습을 뭉친다.

106:9.2 (1173.3) 영원이 성취된 최후 수준에서 무한한 통일을 상상하려고 애쓸 때, 유한한 인간은 그들의 유한한 존재에 본래 있는 지능의 한계와 얼굴을 마주친다. 시간과 공간과 체험은 인간의 개념에 장벽이 된다. 그래도 시간을 들이지 않고, 공간을 제쳐 놓고 체험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도 우주 실체에 대하여 제한된 이해조차 얻을 수 없다. 시간에 대한 민감성이 없이, 어떤 진화 인간도 연속되는 관계들을 도저히 파악할 수 없다. 공간을 파악하지 않고는 어떤 생물도 동시에 일어나는 관계를 헤아릴 수 없다. 체험이 없이는, 어떤 진화 인간도 존재할 수조차 없다. 오로지 무한의 일곱 **절대자**가 정말로 체험을 초월하며, 그들조차 어떤 국면에서는 체험할지 모른다.

106:9.3 (1173.4) 시간·공간·체험은 사람이 상대적 실체를 파악하는 데 가장 크게 도움되는 것인데, 그래도 사람이 완벽하게 실체를 파악하는 데 가장 끔찍한 장애물이다. 필사자와 기타 많은 우주 생물은 잠재하는 것들이 공간에서 현실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진화하여 결실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아차린다. 그러나 이 과정 전부가 **파라다이스**와 영원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시공(時空) 현상이다. 절대 수준에는 시간도 공간도 없다. 거기에는 어떤 잠재하는 것도 실재하는 것으로 파악해도 좋다.

106:9.4 (1173.5) 모든 실체를 통일하는 개념은, 이 시대나 어느 다른 우주 시대에 있든지 상관없이, 실존적인 것과 체험하는 것,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이다. 그러한 통일은 가장 높은 **삼자일체** 속에서 체험으로 실현되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삼자일체**가 겉으로 현실화되는 그 정도는 우주에서 실체에 대한 제한과 실체의 불완전성이 사라지는 데 정비례한다. 그러나 실체의 총 통합은 무조건, 영원히, 실존적으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 있다. 그 속에서 바로 이 우주 순간에, **무한한 실체**는 절대로 통일되어 있다.

106:9.5 (1174.1) 체험하는 자의 관점과 실존적인 자의 관점이 일으키는 역설(逆說)은 피할 수 없고,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와 가장 높은 **삼자일체**는 각각, 오직 하나의 시공 상대성으로서 필사자들이 파악할 수 있는 영원의 관계라는 사실에 어느 정도 근거를 둔다. 가장 높은 **삼자일체**가 차츰 체험으로 현실이 되는 것에 관한 인간의 개념 — 시간 관점 — 은 이것이 이미 현실이 된 것이라 덧붙여 가정함으로 — 영원의 관점으로 — 보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두 관점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실존적으로 무한히 통일된 것이며, 체험적인 가장 높은 **삼자일체**가 실제로 계시고 완벽하게

겉으로 나타났음을 탐지하지 못하는 것은 얼마큼 다음 이유 때문에,
서로 일으키는 왜곡에 기인한다는 진실을 받아들이라고 우리는
유한한 필사자들에게 제안한다:

106:9.6 (1174.2) 1. 인간의 한정된 관점, 제한되지 않은 영원 개념을 파악할
능력이 없다.

106:9.7 (1174.3) 2. 불완전한 인간 지위, 체험하는 자들의 절대 수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106:9.8 (1174.4) 3.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 인류는 체험하는 기법으로
진화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따라서 본래부터 체질적으로 체험에
기대야 한다는 사실. 오로지 **절대자**가 실존적이면서 체험할 수 있다.

106:9.9 (1174.5)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서 우주의 아버지는, 가장 높은
삼자일체에서 스스로 계신 이이다. 아버지가 무한함을 사람이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유한한 한계 때문이다. 실존적이고 홀로 계시고,
삼위일체에 앞서고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스스로 계신 이 개념,
그리고 체험적인 가장 높은 삼자일체 뒤에 있고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스스로 계신 이를 가정하는 것은 바로 똑같은 가설이다. 무한자 안에서
아무런 실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발전은
실체를 받아들이고 우주를 이해하는 능력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106:9.10 (1174.6)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스스로 계신 이**는 모든 실존자에
앞서, 그리고 모든 체험자 뒤에 존재해야 한다. 이런 개념들이 인간의
머리 속에서 영원과 무한의 역설(逆說)을 밝혀 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결코 끝나지 않는 이 문제들에 새로 달라붙어 싸우도록 그러한
유한한 지성인들을 자극해야 한다. 이 문제들은 **구원자별**에서, 그리고

나중에 최후자로서, 그리고 널리 퍼지는 여러 우주에서 너희의 영원한 생애의 끝없는 미래를 통해서, 줄곧 너희의 흥미를 자아낼 것이다.

106:9.11 (1174.7) 머지않아 모든 우주 성격자는 영원을 향한 마지막 추구가 끝없이 무한을 탐구하는 것, 절대적 **첫째 근원 중심**을 찾아내는, 결코 그치지 않는 항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다. 머지않아 우리 모두가, 모든 생물의 성장이 **아버지**와 같이 되는 것에 비례함을 알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무한 자체의 끝없는 가능성에 이르는 영원한 여권(旅券)임을 이해하게 된다. **무한자**를 추구하는 데 성공하는 것은 **아버지**와 같아짐을 성취하는 데 정비례하고, 이 우주 시대에 **아버지**의 실체들은 신의 품질 안에 드러난다는 것을 필사자가 언젠가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우주의 인간들은 신답게 사는 체험 속에서 신의 이 품질을 몸소 이용하며, 신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106:9.12 (1175.1) 물질이고 유한하고 진화하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바탕을 둔 인생은 직접, 인격자의 무대에서 영이 지배권을 얻게 만들고, 그러한 인간을 **아버지 무한자**를 이해하는 데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데리고 간다. 그러한 **아버지**다운 인생은 진실에 근거를 두고, 아름다움에 민감하고, 선에 지배되는 인생이다.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사람은 마음 속에서 신을 예배함으로 빛을 받고, 바깥으로 모든 인격자가 두루 형제라는 정신에 마음을 다하여 봉사하는 데 헌신한다. 이것은 자비로 가득 차고 사랑으로 마음이 움직여 봉사를 베푸는 것이며, 한편 우주 지혜와 자아 실현의 수준, **하나님**을 찾아내고

아버지를 예배하는, 항상 올라가는 수준에서, 일생의 이 모든 품질은 진화하는 인격 안에서 통일된다.

106:9.13 (1175.2) [네바돈의 한 멜기세덱이 발표하였다.]

[133]: 106:5.3 **삼자일체**는 하나의 집단이므로 성격이 없고 개인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134]: 106:8.1 우리말이나 중국어에서 삼위는 성격을 가진 세 분을 의미하고, 여기서 Trinity의 구성원은 비성격일 수도 있어, **삼자일체**로 적는다.

[135]: 106:8.9 궁극성을 지닌 **삼위일체**는 **삼위일체**와 유한을 넘지만 절대 이하인 자들의 관계. 궁극 **삼자일체**와 구별된다.
